

(사)창원시도시재생위원회 발기준비위원회 개최

안기한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18-02-23 13:54

'살기 좋고 살고 싶고, 자랑스러운 창원' 구현을 슬로건으로 난개발과 도심 공동화 등 전반적인 어려움에 처한 창원의 구도심들을 대상으로 쾌적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의 재생을 위한 창원시도시재생위원회가 창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창원시도시재생위원회 발기준비위원회 개최

(사)창원시도시재생위원회 준비위(위원장 조용식)은 22일 오후 5시, 마산 창동 소재 창원시마산창동활성화재단 1층 어울림센터에서 마산, 창원, 진해 상공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준비위원회를 가졌다.

경남대 도시공학과 김 영 교수의 도시재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도시재생뉴딜정책)에 대한 짚막한 설명에 이은 안건심의에서 상임대표 추천은 준비위에 일임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도

록 결정했다.

조용식 준비위원장은 "마창진 통합이후, 구 마산과 진해지역의 상권은 절박할 정도로 피폐해졌으며, 풍요로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마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구 도심의 재생이 절실하다"며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은 주민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져 있어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창립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사)창원시도시재생위원회 창립총회는 다음달 3일 오후 4시 창원 세코에서 개최된다.
창원=안기한 기자 agh0078@

[프린트](#)[취소](#)